UNDRR ONEA & GETI 뉴스레터

36 호, 2022년 10 - 12월

몽골에 학교안전프로그램 확산

지난 5월 학교안전프로그램 소개에 이어서 10월 28일과 29일 UNDRR 동북아사무소는 몽골교육과학부, 몽골국립교육대학교, 자연환경정보연수센터 등 교육관계자 19명과 미래의 학교 교사인 몽골국립교육대학교 대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학교안전프로그램 교사연수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재난위험경감 개념을 이해하고 틸리스미스 동영상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리스크랜드 게임 등을 통해 재난위험경감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13일 학교안전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몽골 국립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한국의 부인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10월 27일 원격으로 만나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주변의 위험요인들을 살펴보고 예방법을 찾아 실천했던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천적 내용을 담아 새롭게 개발된 모듈은 이번 원격수업을 통해 학교간 교류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었다.

아울러, 몽골의 교육기관과 국가비상관리청 및 NGO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향후 학교안전프로그램의 현지화를 위하여 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역량 구축, 학교안전프로그램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교육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몽골 국립교육대학교 학생 커리큘럼에 학교안전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몽골과의 학교안전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몽골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학교안전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UNDRR
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 동북아 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UNDRR ONEA & GETI)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Tower 4층

T: +82-32-458-6570
F:+82-32-458-6599
E: undrr-incheon@un.org
W: www.undrr.org/incheon

자세한 정보:
https://mcr2030.undrr.org/news/climate-change-very-very-expensive

대전에서 개최된 UCLG 세계총회에서 세계재난위험경감의 날에 강조된 도시재난과 기후복원력

10월 13일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세계총회의 '복원력의 미래: 취약점 감소를 위한 초기 조치' 세션에서는 각 도시들이 다양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MCR 2030의 지방 정부 및 파트너의 글로벌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세션에서는 UNDRR,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 (IFRC), 내일의 도시 허브 (Tomorrow's Cities Hub)등을 포함한 MCR2030 파트너들을 비롯해 쾰른(독일), 인천(한국), 라말라(팔레스타인), 타나우안(필리핀), 에스테반 에체바리아(아르헨티나)의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각자의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이 세션은 세계 재난위험경감의 날에 개최되었으며 조기 경보 및 조기 조치(Sendai Framework Target G)는 지출이 아닌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같은 날에 MCR 2030 핵심 파트너인 UNDRR과 UCLG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 – 복원력에 투자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대화형 교육 행사도 세계총회의 부대행사로 마련하였다. 이 세션은 복원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는 지방 및 지방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 정부와 학계를 대표하는15명 참가자들은 Futurities라는 게임에 참여했으며 이 게임은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복원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KOICA 와 함께 한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훈련

GETI는 한국의 국가재난관리연구소(NDMI)와 협력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금 지원을 받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위험 경감에 관한 온라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난 위험을 줄이고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3개년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교육훈련은 참가한 국가들의 국가재난위험관리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 간의 알찬 경험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재난위험경감 경험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에게 각국의 재난 위험 경감 계획 및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들 역시 제공하였다.

녹화 영상:
https://www.facebook.com/watch/live/?ref=watch_permalink&v=1173786283243735

메트로 마닐라 지방 정부, 도시 복원력 로드맵을 수립하다

지난 10월 25일 필리핀 내무부(DILG)가 주관한 2022 도시 거버넌스 포럼은 지방 거버넌스의 복원력 프레임워크를 주류화하는 것이 필리핀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단언했다. 메트로 마닐라에서 참석한 49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도시 복원력에 대한 로드맵 설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웹 세미나에 참석했다. MCR2030은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현지에 맞게 적용하는데 MCR2030이 어떻게 도움을 될 수 있는지, 도시 복원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MCR 2030 도구를 사용하여 지방정부가 복원력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포럼에서는 필리핀 최초의 MCR203복원력 허브로 지정된 마카티市를 통해 체계적인 사고를 이용하여 MCR2030을 현지화하는 방법이 예시로 공유되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과 함께 위험 정보를 기반한 접근법을 탐구하다

10월 20일, UNDRR ONEA & GETI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GETI 교육 시설에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직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교육훈련을 개최했다. 교육훈련에서는 30명의 TCS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위험경감 및 복원력에 관한 주요 개념과 동향을 알리고, TCS의 업무 영역 전반에 걸쳐 재난위험경감의 시각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TCS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3국의 협력을 지원하는 핵심 지역 기구로서, 재난 예방 및 관리를 포함하여 정치 부문부터 사회 문화 및 경제 부문까지 다양한 주제 분야에 관여한다. 그러나 재난위험은 TCS 프로그램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제, 교육, 보건, 미디어, 운송, 농업, 금융 또는 기술과 같은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훈련 기간 동안 진행된 토론을 통해 TCS 직원들은 이러한 주제 영역에 걸쳐 위험 정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주관한 현장방문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인천시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소개되었다.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event/training-urban-resilience-and-making-cities-resilient-philippines

https://www.preventionweb.net/news/urban-resilience-training-philippines-highlights-city-city-cooperation

MCR2030 필리핀, 도시 복원력에 대한 국가-지방 협력 강화 지속

2021년 MCR2030의 필리핀 전국 출범에 이어 10월 19-20일 이틀간 필리핀 국가재난위험관리위원회 (NDRRMC)와 민방위청이 UNDRR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만들기 2030' 온라인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세계재난위험경감의 날(IDDRR)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91명의 전국 지방정부(LGU)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교육 세션은 지방 정부가 재난 및 기후복원력에 대한 전략 계획을 강화하고 재정적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를 위한 도시 개발 이니셔티브(CDIA)의 프로젝트 준비 시설과 같은 지식 및 툴킷 공유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필리핀 최초 MCR 2030 복원력 허브인 마카티市가 다른 도시에게 노하우와 경험 교류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시 간 협력과 경험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교육은 MCR 2030 파트너십과 필리핀 정부의 협력의 연속이며 2022년 11월 기준 66개의 LGU와 필리핀에 기반을 둔 19개의 단체가 MCR 2030에 가입했다.

도시들의 기후활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https://mcr2030.undrr.org/mcr-latest-news

기후 위험에서 복원력 까지

기후 및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최일선에 있는 한 도시 지도자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복원력 구축이 '절대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폴란드 브로츠와프 부시장 Jakub Mazur는 이웃 우크라이나에서 온 250,000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엄청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시는 복원력 의제의 가치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브로츠와프는 최근 재난 및 기후 위험 경감에 대한 리더십과 야심을 통해 다른 도시를 돕기 위한 헌신으로 Making City Resilient 2030 (MCR 2030) 복원력 허브로 인정받았다. Mazur 부시장은 복원력 허브의 기후활동을 보여주는 “기후 위험에서 복원력까지”를 주제로 한 MCR2030 특집 기사 시리즈의 시작을 축하하는 웹 세미나에서 연설을 하였다.

자세한 정보:
https://www.undrr.org/news/disaster-planning-key-wonderful-future

바기오市와 오르모크市, 도시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다중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방법을 마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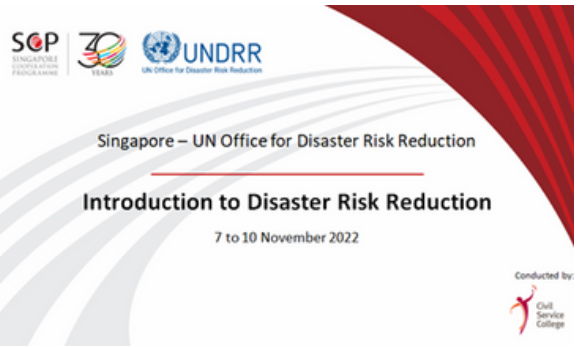
UNDRR GETI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서 열린 도시 복원력 및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에 대한 대면 교육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오르마크와 바기오 두 필리핀 도시의 대표 18명을 초청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도시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초점, 복원력 구축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접근법 및 도구 제공, 두 도시의 후속 역량 구축 및 다른 MCR 2030 파트너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논의와 사전 계획에 집중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부서의 관계자로, 두 도시는 '도시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 온라인 버전을 활용하여 사전 평가를 완료하고, MCR2030의 10가지 필수사항에 맞춰 재난 및 기후복원력 관리를 더욱 해소할 수 있는 도시의 강점과 기회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를 확인했다.

참가자들 또한 스마트 도시 운영부터 고형폐기물 관리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MCR 2030 복원력 허브로 지정된 인천시의 사례를 직접 견학할수 있었다. 지역 내 두 번째 MCR 2030 복원력 허브인 마카티市 관계자들 또한 강사로 참여하여 복원력 허브로서의 헌신과 책무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번 교육훈련에 참여한 기프트 시티, 바도다라市 및 구자라트 재난관리연구소 등 인도 대표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도시에서 역시 MCR 2030이 이행될 계획이다.

더 보기:
https://www.undrr.org/news/mongolia-moves-one-local-resilience

울란바토르와 몽골 21개 州의 MCR 2030 가입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기술적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21개의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2030)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훈련은 UNDRR이 국가재난관리청(NEMA), 지방재난관리국, 몽골 UN상주조정관실과 협력해 MCR2030의 목표와 도구를 국가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소개하고 지방 정부가 이니셔티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훈련에는 몽골 지방의 재난복구 활동에 참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재난위험경감 및 긴급대응, 개발, 보건, 축산, 농업 등의 주요 분야의 관계자들 145명이 참여했다. 공식 출범식은 11월 1일 울란바토르 국회의사당에서 몽골 국가재난관리청(NEMA) 본부장, 울란바토르 수도시 행정부장, 부총리 고문, 유엔 상주조정관, UNDRR, 그리고 21개 지방정부가 원격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MCR 캠페인의 챔피언이었던 몽골의 MCR2030 가입은 국가와 지방 간 재난위험경감 조정 및 계획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만든 중요한 단계이다. 몽골의 수도와 지방은 이제 많은 MCR2030 도시와 경험을 공유하고 MCR2030의 광범위한 파트너 및 자원 네트워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 (SCP) & UNDRR: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소개 과정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GETI와 싱가포르 공무원 대학(Civil Service College, CSC)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 온라인 과정은 재난위험경감의 주요 원칙과 인간의 행동, 정책 및 구현에 복원력을 고정시키는 것에 대해 교육하였다. 사모아에서 멕시코까지의 5개 대륙 42개국을 대표하는 60명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GETI와 CSC의 강사들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입증된 상호 연결된 위험의 '뉴 노멀(New Normal)' 을 기반으로 참가자들은 센다이강령,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및 파리 협정,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포함한 자국의 기존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적용에 대해 배웠다.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이 지원한 이 과정은 재난 위험 경감에 대한 싱가포르의 경험과 통합 위험 관리 및 복원력 구축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도 공유했다.

자세한 정보 및 녹화 영상:
https://www.undrr.org/event/MCR2030-CCFLA-UNDRR

아이디어를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프로젝트 준비에 대한 소개

UNDRR GETI는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2030 (MCR 2030)의 파트너십과 도시 기후 금융 리더십 연합(CCFLA)와 함께 "아이디어를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로 전환하기: 프로젝트 준비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였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이 교육 세션은 프로젝트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각 프로젝트 단계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소개받았고, 특히 도시 기후 금융 리더십 연합과 그 회원들로부터 도구와 프로젝트 준비 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받았다. 이번 교육은 핵심 학습 방법을 확인하는 짧은 퀴즈로 마무리되었다. 105개국/지역에서 온 482명의 참가자가 참석한 이번 교육은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로 동시통역되었다.

마다가스카르 –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재난위험경감 강화

GETI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난 3월에 진행된 재난위험경감을 부문별 업무에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온라인 교육훈련에 이어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재난위험경감 워크숍을 지원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 그리고 현지 유엔 상주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훈련에서는 재난 위험 경감 추세와 개념, 복원력 구축 우수사례, 인도주의적 대응의 재난위험경감, 그리고 재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행동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교육훈련의 마지막 날은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에 전념했으며, 이 기간 동안 한 참가자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교육은 UNDRR이 마다가스카르에 상주하는 유엔기구들과 지속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UN 지속가능 개발 협력 프레임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에 위험과 복원력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노력이 위험 정보를 기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세한 정보:
https://www.climatebonds.net/training/UNDRR&MCR2030-DeepDive-Dec2022

MCR 2030 도시와 파트너는 지방 정부를 위한 채권 발행을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지난 9월 인천에서 열린 '주제별 채권을 통한 하위국가 지속가능금융 확장에 대한 심층 분석' 신규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이어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온라인 세션이 추가로 진행됐다. 이 과정은 MCR 2030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행을 위한 대체 재원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이 교육 과정은 UNDRR이 기후 채권 이니셔티브(CB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안된 것으로, 채권의 역할, 채권 발행에 필요한 핵심 단계, 투자자와 발행자를 녹색 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MCR 2030 도시에서 110명 이상의 참가자가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온라인 세션의 혜택을 받았다.

MCR2030 교육을 통해 도시 복원력에 참여하는 태국의 대학 네트워크와 지방 정부

태국의 도시 재난위험경감 및 도시 복원에 대한 첫 번째 대면 교육이 2022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콕에서 UNDRR GETI와 ROAP, UNDP 태국, 태국 재난 준비 재단(TDPF) 산하 태국 재난 복원 네트워크(TNDR)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기후 복원력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학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교육이 끝날 무렵, Prik와 Lam Pak Bia는 태국에서 처음으로 MCR 2030에 가입한 두 지방자치단체가 되었고 대학과 연계를 맺기 시작했다. 대학 대표들은 또한 학업 커리큘럼에 도시 복원력을 위한 10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도시 복원력을 통합하고, 도시를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를 태국 지역 맥락에 맞게 맥락화하고 번역하고, 주최국과 이웃 자치단체가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 적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17개 대학, 32명의 대학 전문가와 지방단체장 3명, 행정자치부 재난예방 및 완화과, 국가재난안전훈련센터,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Nation TV 그리고 TNDR 대표 16명 등이 참석했다.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
https://mcr2030.undrr.org/disability-inclusion-scorecard

장애인의 재난 복원력 참여를 위한 새로운 도구

지방 정부가 장애인의 관점과 역량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난 복원력 전략을 설계, 공식화 및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새로운 도구가 출시되었다.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의 장애인의 포함을 위한 부록은 지방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시민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우간다 정부의 국토주택도시개발부 차관인 마사 무가루라씨는 12월 6일 부록 공개를 기념하는 MCR 2030 웹 세미나에서 모든 재난 상황에서 불균형한 수의 장애인이 어떻게 고통받고 사망하는지 강조했다. “지방 재난 예방 대책은 대부분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설계하고 시행된다. 재난위험경감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력엔 이러한 공동체의 고유한 관점과 기여는 거의 없습니다,”라고 무가루라 씨는 말했다.

SAARC 회원국을 위한 도시 복원력 및 기후 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UNDRR ONEA & GETI와 남아시아 지역 협력 연합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재난관리센터 (SDMC)의 임시 유닛 (Interim Unit, IU)은 12월 5일부터 8일까지 SAARC 회원국을 위한 도시 복원력 및 MCR 2030에 대한 교육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도 간디나가르의 재난관리센터 연수시설에서 열린 이번 교육훈련에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의 지방 및 국가 정부 대표 22명이 참석해 재난관리와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가자들은 재난위험경감의 주요 개념, 10가지 필수사항 그리고 MCR 2030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예시를 소개받았고, 지방재난위험경감 실행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 재난복원력 스코어카드를 활용을 연습하였다. 이번 교육훈련은 최근 MCR2030에 가입한 구자라트 국제 금융 테크시티-GIFT City의 현장방문을 통해 SAARC 지역 국가와 도시가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지역에서 구현한 복원력 노력 사례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12월 8일 SAARC 헌장의 날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재난에 직면하여 도시와 국가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약속을 공유했다.

MCR2030 복원력 허브들이 기후를 위해 나서다

두번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P27 샤름엘셰이크; COP28 두바이)가 MCR2030 복원력 허브 도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MCR2030이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COP 프로세스의 중심에서 기후에 민감한 도시 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를 제공한다.

샤름엘셰이크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준비를 갖춘 도시로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1 및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파리 협정, 새로운 도시 의제 등을 포함한 기타 글로벌 프레임워크의 달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MCR2030 복원력 허브가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대한민국 인천과 도시 간 교류를 포함한 준비 과정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최초의 복원력 허브의 경험을 배울 기회를 가졌다.

GETI 의 지원으로 샤름엘셰이크는 MCR2030 복원력 허브 포럼을 소집하여 야심찬 MCR2030의 COP28 참여 전략을 논의하고 각 허브별 실행 계획을 넘어 복원력 있는 도시 개발의 핵심 주제에 대한 파트너십 및 유대 형성을 강화했습니다. COP28의 주제는 '솔루션 COP'로 MCR2030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예정된 UNDRR ONEA & GETI 교육훈련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https://www.undrr.org/about-undrr-where-we-work/incheon#CalendarofEvents

유용한 자료:

-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푸드 시스템 복원력 부록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Food System Resilience Addendum)**
  https://mcr2030.undrr.org/food-system-resilience-scorecard
-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문화유산에 대한 부록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Cultural Heritage Addendum)**
  https://mcr2030.undrr.org/cultural-heritage-scorecard
-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장애인의 포함을 위한 부록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Cities: Annex for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y)**
  https://mcr2030.undrr.org/disability-inclusion-scorecard
- **산업 및 상업 건축물을 위한 재난 복원력 스코어카드 (The Disaster Resilience Scorecard for Industrial and Commercial Buildings)**
  https://www.unisdr.org/campaign/resilientcities/toolkit/article/the-disaster-resilience-scorecard-for-industrial-and-commercial-buildings